

제 12 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893

한글 성명: 황영

젊음에게
 당신은 이렇게 빨리 왔으나, 그러나
 당신이 바쁘게 가도록 운명지어졌다.
 당신은 내 인생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,
 내마음에 무자비하게 깊은 상처를 남긴
 운명이다. 당신은 나를 위해 행복한
 장미 한 송이를 꺾어 주지만, 내 ~~키~~ 가지
 에 박힌 따끔한 꽃가시를 깎아주는 것
 도 잊게 될 운명이다.
 당신은 내가 아직 정신을 차
 리지 못했을 때 이미 내생명의 출석부
 에 서명했다. 행복의 여신이 자신을
 위해 찾아준 것에 감사하고, 그로 인해
 순결한 순진함을 잃고 과거의 무구한
 죽음으로 맞이하는 행운을 누릴지도 모
 른다. 그대라는 아름다운 것에 취해 있을
 때 술을 마시다가 보니 두 모금도 없
 었다. 술이 적다고 탓할 수도 있지만,
 첫술이 과욕이라고 자책할 수도 있다.
 " 청춘은 바치는 만큼 수입도 달라요.

제 12 회 중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893

한글 성명: 황영

그는 영원히 인생의 상점에서 이긴 사
장이예요. "나는 이 말을 믿는다. 당
신은 동이 드기 전 새벽에 나에게
너무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. 그
러나 나는 선물 상자를 뜯는 데 정신
이 팔려 선물들을 가지고 놓고 싶어졌다.
그래서 남은 노폐물들을 정리할 틈도 없
이 내 방문을 막아버렸다. 그러나 이
때 나는 ~~피부~~ 갑자기 선물 속에 낱카
름기 그지없는 구부러진 칼이 숨겨져
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. 나는 피부가
베어져 피가 흘렀지만, 안에는 피 흘린
상처를 싸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
것을 발견하였다. 나는 집 밖에 가서
도 움을 청하고 싶지만, 내가 나갈 수
있을까? 나는 흘린 핏방울을 한 방울
씩 세 수 있을 뿐이다. 어쩌면 나는
지금쯤 너의 음흉함에 중오를 느끼게
되지만, 벽 모퉁이에서 나의 부주의함을
탓할지도 모른다.

제 12 회 중 국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893

한글 성명: 황영

당	신	은	온	갖	꽃	이	아	름	다	운	을	다	투	는
화	원	이	다.	화	원	에	가	장	아	름	답	게	핀	
꽃	은	장	미	이	다.	나	는	내	화	원	이	모	든	
것	이	장	미	이	며,	또	한	*	송	이	보	다	아	름
운	것	을	대	행	스	럽	게	생	각	한	다.	나	는	
떨	러	북	돋	위	험	은	무	릅	쓰	고	마	구	약	탈
다.	그	런	데	다	시	꽃	밭	은	나	왔	을	때		
땀	죽,	손,	발	위	가	보	장	미	보	가	더	북	은	
핏	방	울	이	쏟	아	진	다.	심	지	어	속	까	지	북
울	샅	을	떨	러	넙	은	가	시	가	발	견	되	기	도
했다.	다	시	는	장	미	꽃	을	만	지	지	않	겠	다	
고	마	음	먹	었	을	수	도	있	지	만,	다	음	엔	마
음	을	단	단	히	먹	고	꽃	들	을	꺾	어	야	할	지
도	모	르	는	다.										
당	신	은	영	원	하	이	렵	게	추	측	할	수	없	
고,	만	질	*	수	없	는,	천	인	의	예	상	을	뛰	어
넘	어,	사	람	들	을	경	계	할	수	없	게	한	다.	
그	러	나	우	리	가	당	신	의	술	하	려	에	복	종
는	것	은	아	뉘	닐	까?	당	신	앞	에	서	월	월	
망	만	하	고	지	책	만	할	까	요?	적	정	답	은	

